

## 韓國의 ‘楚辭’ 受容 樣相 研究\*

申斗煥\*\*

### <目次>

I. 서론	3. 조선 초기의 초사 수용
II. 초사의 위상과 그 수용의 범위	4. 조선 중기의 초사수용
III. 한국의 楚辭 수용 양상	5. 조선 후기의 초사 수용
1. 新羅의 초사수용	IV. 결론
2. 高麗의 초사수용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중국 2014년 중국 남통대학 초사연구중심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역대의 초사 수용 양상에 대해 발표해 주기를 요구받고 작성된 논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한문학 작품 속에 다양하고 폭넓은 楚辭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여 우리한문학의 위상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초사는 세계문학사로 볼 때 동아시아의 고대 시가의 근원이 되는 시가문학의 보고이다. 초사는 옛날 초나라 중국 남방 문학의 고결한 선비정신과 忠臣戀主의 관료의식은 한국 선비들의 귀감이 되었고 이소를 비롯한 초사는 한국 선비들의 필독서였으며 한국 고대의 교육과정 중에 필수 교과목에 들어 있었다. 한국의 문사들은 어려서부터 초사를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4년 12월 남통대학 초사연구중심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ilovestudent@hanmail.net](mailto:ilovestudent@hanmail.net)

楚辭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소개되어 인용되기 시작했다. 楚辭는 『文選』, 『史記』, 『朱子大全』, 『古文眞寶』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에 유입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楚辭는 한국한문학 장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초사에 대한 탐독의 범위는 「이소」, 「천문」, 「원유」, 「구장」, 「구가」 등 초사의 25편 전편에 까지 미치고 있었으며 초사의 전편의 용어들이 조선의 시가에 다양하게 그 향기를 발하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증명된다.

그 수용의 양상은 주로 시구를 찾아 인용하기도 하고, 초사를 바탕으로 琢句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어를 재창조하기도 하고, 초사의 형식에 가탁하여 아예 새로운 초사를 짓기도 하였다. 조선의 문사들에게 초사는 문학의 방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 굴원을 비롯한 초사의 작가의식은 유교적인 사상의 기초 위에 이해되었고, 굴원처럼 고결하게 行吟澤畔하며 자기의 울분을 자연에 가탁하여 자유롭게 구사한 비유와 상징은 조선시인의 강호가도와 산수시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 시인들의 유배시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문예작품에는 초사의 주옥같은 향기로운 언어들이 앙금처럼 녹아 있었다.

【주제어】 屈原, 楚辭, 韓國, 受容, 詩歌

## 1. 서론

우리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詩歌의 根源으로 『詩經』과 『楚辭』를 일컫는다. 『詩經』은 기원전 5세기에 공자에 의해서 산삭되었지만 『楚辭』는 『詩經』보다도 약 100여년 뒤에 屈原에 의해 歌唱되었다. 그러나 굴원 이전부터 楚辭는 존재했다. 그래서 북방에 『詩經』있었다면 같은 시대에 남방에 『楚辭』가 있었다. 그러나 『詩經』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楚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읽히지도 않고 연구도 소략한 편이라는 감이 든다.

이런 연구 정황 속에서 중국 남통대학의 초사연구중심에서 초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것은 時宜適切한 發想이라고 생각한다. 초사에 대한 한 연구자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논문은 이 학술대회에서 한국 한문학에 나타난 초사의 수용 양상을 발표해 주기를 요구받고 작성한 논문이다.

필자는 조선의 초사수용에 대한 미의식에 대해 논문을 한 편 발표한 적이 있다.<sup>1)</sup> 그런대도 불구하고 한국 고대시기에서 초사가 활발하게 수용되는 양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전의 논문을 바탕으로 범위를 신라 고구려까지 넓히고 조선의 초사수용을 넓히는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발표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 논문에 대한 보완과 수정의 필요성과 동시에 자기표절의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한국에서 초사는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한반도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일찍부터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楚辭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소개되어 인용되기 시작했다. 楚辭는 『文選』, 『史記』, 『朱子大全』, 『古文眞寶』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에 유입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楚辭는 한국한문학 장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고전시가 중에는 초사를 인용한 작품이 많이 존재한다. 굴원의 고결한 인품을 사모하고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주제의식인 憂國과 忠臣戀主 초사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원망과 이별, 참소와 유배의 한시와 시조 등에서 초사를 인용한 것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와 고려, 조선 시인들이 남긴 시가 속에는 초사에 대한 언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비해 거기에 따른 다양한 비평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申斗煥, 「朝鮮士人들의 楚辭 受容과 그 美意識」, 『漢文學論集』 제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pp.55-82.

우리 조선 사인들이 원망을 표현한 방대한 문예작품 속에는 楚辭의 파편들이 앙금처럼 녹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문학 속의 楚辭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詩經』에 비해 연구 성과가 미약하다.

한국의 초사 수용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sup>2)</sup> 그러나 楚辭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의 형식과 내용, 주제의식, 등 수용측면의 문예미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신라, 고려, 조선시대 중기, 후기로 나누어 시대별로 한국의 楚辭 수용의 양상에 대해 그 개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초사 수용연구는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한국문학비평 활동에 일정한 공헌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II. 초사의 위상과 그 수용의 범위

다음은 『文心雕龍』, 「辨騷」편의 贊이다.

不有屈原	만약 굴원이 없었다면
豈見離騷	어떻게 「이소」를 볼 수 있었겠는가?
驚才風逸	놀라운 재능을 바람처럼 휘날리고
壯采煙高	장쾌한 기개는 구름처럼 높이 흘러간다
山川無極	산천은 끝도 없이 펼쳐지고
情理實勞	드러난 情理는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金相玉式	金같은 형상에 玉같은 구성
艷溢鎬毫	치밀한 묘사에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도다 <sup>3)</sup>

- 2) 이창룡, 「梅月堂의 굴원 수용 양상」, 『국어국문학연구』 제91호, 국어국문학회, 1984.  
 高定佑, 「鄭蘊 유배한시의 楚辭 수용고」, 濟州大學校人文大學國語國文學科國語國文學研究會, 1986.  
 윤주필, 「楚辭 수용의 문학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국한문학연구』 제9호, 한국한문학회, 1987, pp.423-472.

여기에서 초사의 미학에 대한 찬양을 볼 수 있다. 굴원의 이소는 남방의 시가로서 그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넘쳐난다. 굴원의 인물에 대한 풍격과 초사 작품에 대한 품격과 작가정신을 이렇게 요약하여 잘 표현한 작품도 드물다.

宋나라 黃伯思의 「翼騷序」에 “작품은 楚나라 언어를 사용했고, 리듬은 楚나라 곡조를 바탕으로 했고 초나라의 고대 지명을 사용했으며, 초나라의 물명을 사용했다. 그래서 초사라고 했다”고 한다.<sup>4)</sup> 초사는 시경과는 다른 남방문학의 독특한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황화의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문학을 논함에 북방에서 공자에 의해서가 산삭되어 시경이 탄생되었다면 그 후 약 1세기 후에 남방문학의 대표적인 楚辭가 굴원에 의해 가창되었다. 그러나 굴원시대 이전에 이미 초사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초사의 형식에 맞추어 굴원이 참소를 입고 축출되는 울분의 심정을 읊은 것으로 추정된다.

楚辭라는 명칭은 한나라의 『史記』와 『漢書』에 처음 나온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사는 굴원이 최초로 구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굴원은 BC 343경에 태어나서 BC 277년경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굴원의 어부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창랑가는 『孟子·離婁上』에도 나오는 것이다.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고,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것이라  
- 『孟子·離婁上』

맹자는 BC 371년경 ~ BC 289년경 까지 살았던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맹자란 책이 쓰여진 것은 약 BC 280년경으로 추정된다. 맹자는 추나라 사람이다. 『맹자』는 梁나라, 魏나라, 齊나라, 鄒나라를 유세할 때의 기록으로, 각

3) 劉勰, 『文心彫龍』, 「辯騷」.

4) 黃伯思, 「翼騷序」.

제후에게 仁政을 설파한 내용이다.

굴원과 맹자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초나라와는 다른 나라였는데도 맹자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 굴원과 맹자는 「창랑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본다면 초사는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孟子離婁上』에,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로다.’ 하니, 공자가 듣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들어보라. 맑으면 갓끈을 씻고 탁하면 발을 씻는다 하니 이것은 창랑수의 맑고 탁하기에 달려 있구나.’ 하였다.”<sup>5)</sup>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공자도 언급한 사실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공자는 아이들에게 창랑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였다. 공자시대에도 이 노래는 불리지고 있었다. 공자(BC 551년 ~ BC 479년)와 굴원의 시간적 거리는 약 백여 년이다. 공자시대에도 이 노래는 불리어지고 있었다. 굴원의 어부시를 돌이켜 보면 어부가 부르는 장면이 액자화 되어 있다. 이것은 굴원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불리어지고 있던 것을 어부가 등장하여 부른 것으로 창작되어 있다. 이 어부의 노래는 굴원의 창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나라 노래이다. 초사는 남방의 시가문학으로 공자시대에도 이미 불리어지고 있었다.

『論語微子』에 나오는 이 노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초나라의 狂客 接輿가 공자를 풍자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면서 공자의 수레 옆을 지나갔다.

鳳兮鳳兮	봉새야, 봉새야!
何德之衰	어찌 그리 덕이 쇠하였나.
往者不可諫	지나간 건 따질 수 없어도,
來者猶可追	오는 건 그래도 잡을 수 있겠다.
已而已而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今之從政者殆而	지금 정치하는 놈들은, 위태하도다.

5) 『孟子離婁上』, “有孺子 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 孔子曰 小子 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공자가 내려 더불어 말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재빠르게 몸을 피해버려 함께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말았다.<sup>6)</sup> 이때 공자는 초나라에서 채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孔子 自楚反乎蔡) 공자는 초나라 민간가요들을 채집하였다. 이 노래가 논어에 채록된 것을 보면 초사의 노래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을 것 같다. 이것 또한 ‘楚辭(초나라 민간 가요)’로 볼 수 있겠다. 楚나라는 기원전 1042년 ~ 기원전 223년간 존재했던 오래된 나라였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초사의 기원은 초기로 더 올라 갈 수도 있다.

『莊子人間世』 편에는 이 接輿의 「鳳兮歌」가 나오는데 그 전편이 수록되어 있다. 공자시대에 불리어지던 초사 「봉혜가」가 장자에 의해 채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莊子是 기원전 365년경 ~ 기원전 270년경 사이에 존재한 사람으로 그의 생몰연대와 굴원의 생존연대는 비슷하다. 초나라의 민간가요는 굴원 그 이전부터 불리어져오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詩經』의 노래 소리가 그치자 누구도 그 전통을 이은자가 없더니 울연히 신기한 문학이 일어났다. 이것이 楚辭란 것으로 높이 치솟아 『詩經』의 뒤를 따르고 분연히 날아서 漢代의 賦家를 앞질렀다.”라고 하여 초사의 위상을 일찍이 설파한 적이 있다.<sup>8)</sup> 이것은 초사에서 賦의 장르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詩經』은 4언구가 많고, 楚辭는 오언, 육언, 칠언의 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언·칠언시가 초사에서 비롯되었고, 고시가를 비롯하여 賦樂府, 駢儷文, 근체시 및 심지어는 희곡, 소설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문학의

- 
- 6) 『論語微子』, “楚狂接輿歌而過孔子 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 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 7) 『莊子人間世』, “孔子適楚, 楚狂接輿游其門曰: 「鳳兮鳳兮 何如德之衰也 來世不可待 往世不可追也 天下有道 聖人成焉 天下無道 聖人生焉 方今之時 僅免刑焉 福輕乎羽 莫之知載 禍重乎地 莫之知避 已乎已乎 臨人以德 殆乎殆乎 畫地而趨 迷陽迷陽 無傷吾行 吾行卻曲 無傷吾足 山木 自寇也膏火 自煎也 桂可食 故伐之 漆可用 故割之 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
  - 8) 劉鏞, 『文心彫龍』, 「辯騷」.

모든 장르에 방대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楚辭의 작품에 흐르는 일반적인 주제의식은 愛國이며 주로 怨望과 忠臣戀君之詞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들은 굴원의 고결한 성정을 바탕으로 참소의 비열한 정치를 고발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불의와 협잡을 하지 않고 추방당하여 고고하게 울분과 비탄을 토로하여, 불의를 비판하고 자결을 택하는 비장미 넘치는 정의로운 관료상이 함의 되어있다.

또 조정에서 축출되어 산수 간에 거처하며 향기로운 남방의 초목과 진기한 동물들을 묘사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려는 아름다운 비유와 상징은 은일과 풍자로 일관되고 있으며 전원과 산수의 정취를 노래한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가 되고 있었다.

또 초나라 사머니즘의 죽음에 대한 초월과 신이한 상상이 초현실적으로 표현되고 남방의 아름다운 대자연의 四季가 신화와 전설을 만나 교용하며 현실과 이상의 충돌 속에 풍부한 시어들을 탄생시켜 넉넉하게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것은 낭만주의의 선구였다.

초시는 중국 남방문학의 대표작이자 『詩經』에 버금가는 세계문학 속의 걸작이다. 지구상에 불의로운 사회를 고발하는 사회미학과 자신의 고고한 성품을 자연에 가탁하는 성정미학이 어우러진 이러한 작품은 자고로 드물었다.

유성준은 이를 두고 “굴원은 신선사상과 초나라의 무속 풍속 방언을 작품 속에 적절히 도입시키면서 『詩經』과 함께 중국 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문학세계를 창조하였다.” 하였다<sup>9)</sup>

『楚辭』는 유향이 초나라 懷王의 충신 屈原 (BC 340-278)의 離騷와 25편의 賦 및 후인의 작품에 자작 1편을 덧붙여 『楚辭』를 편집했으며, 後漢의 王逸은 본서의 辭章을 考定註釋하여 『楚辭章句』16권을 지었다. 현존하는 것은 굴원의 「離騷」, 「九歌」-(東皇太一, 雲中君, 湘君, 湘夫人, 大司命, 少司命, 東君, 河伯, 山鬼, 國殤, 禮魂), 「天問」, 「九章」-(惜誦, 涉江, 哀郢, 抽思, 懷沙, 思美

9) 柳晟俊, 『楚辭選註』, 형설출판사, 1989.

人, 惜往日, 橘頌, 悲回風.), 「遠遊」, 「卜居」, 「漁父」, 宋玉 「九辯」, 「招魂」, 굴원 또는 景差的 「大招」, 「惜誓」, 淮南小山的 「招隱士」, 東方朔의 「七諫」, 嚴忌의 「哀時命」, 王褒의 「九懷」, 유향의 「九歎」의 16권외에 왕일의 「九思」를 더하여 17권이다. 洪興祖의 『楚辭補註』 17권이 있고, 宋나라의 朱子は 굴원賦 25편을 「離騷」, 송옥 이하 16편을 「續離騷」라 하여 『楚辭集注』 8권을 짓고, 周나라의 荀卿부터 송나라의 呂大臨까지의 52편을 『楚辭後語』(6권)에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楚辭辨證』 상 하 2권을 만들었다. 『楚辭集註後語辨證』이라 총칭하는 明代의 汪瑗, 清代의 林雲銘, 蔣驥 등은 굴원부와 「招魂」 「大招」만을 註釋 傳述하였으므로, 이들만을 『楚辭』로 여기는 책도 있다. 중국 문학사에 일컬어지는 초사의 작품 범위와 주석은 대략 이 정도이다.

초사는 한문학에 있어서 사부의 장르를 탄생하게 하였다. 徐師曾의 『文體明辨』에 의하면, 楚辭는 『詩經』시의 한 변체로서 대략 六意를 겸비하고 있으나 賦체가 가장 많아 이후 辭賦의 작가들은 모두 이를 鼻祖로 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사부를 古賦, 즉 騷體賦, 俳賦, 文賦, 律賦의 네 가지로 나누어, 고부는 「離騷」에서 「九辯」에 이르는 楚辭 작품에 그 기원을 두고 문부는 「卜居」와 「漁父」에 그 기원을 두었으며 俳賦는 古賦에서 또 律賦는 俳賦에서 나왔고 그 연원을 모두 楚辭에 두고 있다고 했다.

초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옛날 漢武帝는 離騷를 사랑했고, 회남왕 劉安은 그를 위해서 楚辭의 해설을 썼다. 회남왕 유안은 여기에서 “國風은 연애를 노래하면서도 음란에 빠지지 않았고, 小雅는 원망과 비방을 노래하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았다. 楚辭는 그 양자를 겸했다고 할 수 있다. 더러운 속세에서 벗어나서 속세의 밖에서 소요하고 그 淸淨성은 물을 들이려고 해도 들일 수 없다. 일월과 그 빛을 다룬다고 비교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다. 반고는 그를 평하여 “굴원은 재주를 드러내고 자신을 올려 울분과 변민의 나머지 강에다 몸을 던져 죽었다. 문장은 화려 典雅하여 賦의 祖先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송나라 경문공 기가 말하기를 “「離騷」는 詞賦의 시조이니 후인들이 詞賦를 함에 있어 마치 지극히 方正하여 曲尺을 기할 것이 없고 지극히 원만하여 規를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하였다.<sup>10)</sup>

사마천은 사기 굴원열전에서 “그 글은 요약되고 그 글은 미묘하며 그 뜻은 간결하고 그 행동은 청렴하다. 그 글의 분량은 적고 취지는 지극히 크다. 예를 드는 것은 비근하나 그 뜻이 보여주는 비는 원대하다. 그 뜻이 간결하기 때문에 그가 인용한 물건은 향기가 있다.”고 하였다.

초사는 중국본토의 뛰어난 문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굴원의 楚辭는 초나라의 명산, 대천, 奇花, 香草는 모두 그 지방특산물로서 楚辭의 신기한 색채를 물들이고, 비유와 상징의 심미적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초나라의 지리적 자연경관에서 비롯되는 형상사유는 借景抒情, 情景交融, 과정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작가의 貞操와 理想을 아우르는 人格美와 시인의 내재적인 정신미를 심화시켜 낭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楚辭가 그 예술적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들의 여러 언급에서 楚辭의 화려한 문예미학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조선의 黃景源(1709-1787)은 “유향이 편집한 「離騷」는 무려 16권이 나 된다. 후한 때 반고와 가구가 장구를 지었는데 문장에 빠진 것과 오류가 많았다. 원나라 초중기에 교서랑 王逸이 유향의 구분을 얻어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離騷」경 16권이 다시 세상에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離騷」에는 옛 육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장구에는 밝혀놓은 것이 없다. 이것은 왕일의 실수이다. 태사공은 말했다. 『詩經』 國風은 여색을 좋아하나 음란하지 않았고, 小雅는 잘못을 원망했지만 어지럽지 않았다. 「離騷」는 이것을 겹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離騷」는 육의에 근원 한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한나라 이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는데 「離騷」를 아는 자는 진실로 적다. 황경원이 비로소 장구를 고정하여 그 육의를 서술하면서 그 의심나는 것은 모두 뺐다.<sup>11)</sup>라고 하였다.

10) “宋景文公 祁曰, 離騷爲詞賦之祖 後人爲之 如至方 不能加矩 至圓 不能過規矣”

황경원은 왕일의 『楚辭章句』 16권을 의심하여 楚辭의 考定작업에 나섰다. 「離騷」에 육의가 있다고 하고 왕일의 실수를 지적하여 「離騷」를 바로 잡는다고 하였다. 그는 「離騷」를 『詩經』의 뒤를 잇는 유교정신의 변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성호는 「離騷解」<sup>12)</sup>를 통하여 「離騷」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 의문이 가는 것을 풀어놓았으며, 이규경 역시 『五洲衍文長箋散稿』의 여러 곳에서 楚辭에 대한 주석의 의문을 제시하고 자기의 견해를 밝혀 놓고 있다. 조선의 많은 楚辭 애독자들은 楚辭를 읽어 가면서 해석에 의문이 가는 곳을 밝히려고 애쓴 흔적들이 조선 사인들의 문집 속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조선 사인들은 대체로 근체시가 楚辭에서 유래했다는 설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순암 안정복은 “일찍이 여러 모로 상고하고 논하건대, 國風과 小雅 大雅의 正格은 廣載에서 비롯되었고, 그 變格은 五子之歌에서 비롯되었다.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作者가 점점 많아지다가 周나라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으니, 시를 진술하게 하여 그 지방의 풍속을 살펴보고, 郊廟와 鄉黨에서도 시를 쓰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공자가 305편으로 정리하여 묶어 후세에 전함에 미쳐서 시의 道가 성대해지게 되었다. 아, 주나라가 쇠하면서 시가 없어졌는데, 屈原이 그 법을 얻어 離騷經을 만들었고, 蘇武와 李陵이 그 법을 얻어 五言의 시를 지었으며, 이를 뒤이어 七言이 지어지고 다시 이어서 律詩가 지어졌다.”<sup>13)</sup>라고 하였다.

식산 이만부는 “「離騷」는 『詩經』의 시가 한번 변한 것이고 오언시는 「離騷」가 변한 것이다. 주자는 오히려 그 괴이하고 신이하며 원망하고 근심하고

11) 黃景源, 『江漢集』 권8, 「考定離騷經序」, “劉向所集離騷經凡十六卷 後漢時 班固, 賈逵作章句 文多脫謬 元初中 校書郎王逸得向舊本而叙之 故離騷經十六卷 復行于世 然離騷有古六義 而章句無所發明 此逸之失也 太史公言 國風好色而不淫 小雅怨誹而不亂 若離騷者 可謂兼之 蓋離騷 原於六義 而諸儒由漢以來 知離騷者誠寡矣 景源始考定章句 述其六義 而疑者皆闕之也 …”

12) 李漢, 『星湖僊說』, 「離騷解」.

13) 安鼎福, 『順菴集』 권18, 「百選詩序」

격한 언사를 『楚辭集註』에 실었으며 또한 위아래의 고시를 취하여 楚辭의 뒤를 잇고자 하였으니 주자의 뜻은 반드시 소재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용된 초사의 범위는 초사 전반에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소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초사 작품에 대해서도 한국의 문인들은 꼼꼼히 읽고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에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초사는 한국의 한문 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였다.

### Ⅲ. 한국의 楚辭 수용의 양상

#### 1. 新羅의 초사수용

高句麗 小獸林王 2년에 설립한 太學에서는 『史記』와 『漢書』 그리고 『文選』이 이미 교육되고 있었다. 『史記』 열전에는 굴원과 초사가 이미 소개되고 있었고 『文選』에서는 이미 초사의 여러 작품이 대부분 소개되고 있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사마천의 『史記』의 체제를 본받아서 열전을 싣고 있다. 그렇다면 굴원과 초사는 당연히 소개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싣혀 열전에는 굴원과 초사가 등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싣혜에게 말했다. “그대는 할아버지대부터 충성과 공정한 재질로 세상에 이름이 났었는데, 이제 아침 잘하는 신하의 참소와 훼방을 입어 멀리 竹嶺 밖의 황량한 벽지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니 원통하지 않은가? 어찌 바른대로 이뢰어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는가?”

싣혜가 대답하였다. “옛날 屈原은 홀로 충직하다가 楚에서 쫓겨났고, 李斯는 충성을 다했으나 秦의 극형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침 잘하는 신하가 임금을 미혹케 하여 충성스러운 이가 배척당하는 것은 옛날에도 역시 그러했으니 어찌 슬퍼하겠는가?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면서 長歌를 지어 자신의 뜻을 표하였다.<sup>14)</sup>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실해 열전에는 참소와 횡방을 입고 죽령 밖으로 좌천되어 떠나면서 굴원의 충직과 초사가 인용되고 있다. 실해가 한 말이니 이것은 신라에서도 굴원과 초사가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 당시에도 참소를 입고 좌천되면 으레 굴원을 떠올렸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배척되면 공분을 사게 되고 애국시가지로서 초사는 일찍부터 인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한 장기는 굴원이 부른 초사로서 어부사인 듯하다. 신라시대에는 이미 초사가 수용되고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도 신라의 국학에서는 소통의 文選을 강의하였다. 문선에는 초사의 여러 작품이 소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통일신라시대에 오면서부터 이미 초사의 대부분 작품이 소개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신라의 골품제도의 모순은 조정에서 유배와 축출, 시기와 모함, 참소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는 초사를 읽히게 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조기 유학의 열풍으로 일찍부터 당나라로 유학했던 학자들에 의해 초사는 전파되고 유행되었을 수가 있었다.

최치원은 “질그릇과 黃鍾을 거론한 楚大夫의 탄식을 또 어떻게 면하겠습니까(瓦釜黃鍾 寧免楚大夫之歎).”<sup>14)</sup>라고 한 것은 군자는 배척을 받고 소인이 득세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것은 『楚辭』 屈原의 「卜居」에 “웅장한 소리를 내는 황종은 버림을 받고, 질그릇 두드리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黃鍾毀棄 瓦釜雷鳴]”라는 표현에서 따온 것이다. 黃鐘은 十二律呂의 기본이 되는 음이다. 굴원 당시에 이미 음악의 기초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굴원이 초나라 三閭大夫를 지냈기 때문에 楚大夫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초대부의 탄식’을 신라의 시대상황에 견주어, 군자와 소인배, 충신과 간신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崔致遠은 또 「再獻啓」에서 “창자가 하루에도 아홉 번

14) 金富軾, 『三國史記』 권48, 列傳, 第八, 「實兮」, “或謂實兮曰 君自祖考 以忠誠公材 聞於時 今爲佞臣之讒毀 遠宦於竹嶺之外荒僻之地 不亦痛乎 何不直言自辨 實兮答曰 昔 屈原孤直 爲楚攢黜 李斯盡忠 爲秦極刑 故知佞臣惑主 忠士被斥 古亦然也 何足悲乎 遂不言而往 作長歌見意.”

15) 崔致遠, 『桂苑筆耕集』 권8, 「滑州王令公」

씩 돈다.’하였으니, 그것은 초사에서 나온 말로 시름이 많고 생각이 간절하다는 뜻이다. 또 양섬이란 사람과 이별하는 시 『酬進士楊瞻送別』에서도 초사의 인용 흔적이 나타난다.

海山遙望曉煙濃	해산은 저 멀리 짙은 새벽안개 속에
百幅帆張萬里風	백 폭의 돛은 만리의 바람에 펄럭펄럭
悲莫悲兮兒女事	최고의 슬픔 말하는 것은 아녀자의 일
不須悵悵別離中	모름지기 이 이별을 슬퍼하지 않으리 <sup>16)</sup>

‘悲莫悲兮兒女事(이별을 슬퍼하는 것은 아녀자의 일이다.)’라고 한 구절은 屈原의 楚辭 九歌 「少司命」의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은 살아서 이별이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새로 사귀는 것이다.[悲莫悲兮生別離 樂莫樂兮新相知<sup>17)</sup>”라는 시구를 차용한 것이다. 최치원의 초사수용은 이소를 비롯한 구가의 「少司命」작품에 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최치원은 초사를 어디에서 읽었을까? 최치원이 중국에서 생활한 곳이 양주 주변이었던 모양이다. 중국 양주에는 최치원 기념관이 있다. 최치원은 중국 남방에 거주할 때 이 지방에서 유행하는 초사들을 읽지 않았을까? 신라시대의 문헌에는 초사에 대한 흔적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또 장강 변의 양주가 운하의 시발점으로 당나라와 무역이 빈번하던 곳이어서 신라와 당나라의 무역로를 통해서 초사가 유입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좌우지간 초사는 신라시대에 이미 한국에 소개되고 있었다.

## 2. 高麗의 초사수용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으므로 초사의 수용양상이 조선시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동문선』에는 신라시대 최치원을 비롯하여 고려

16) 崔致遠, 『桂苑筆耕集』 권20, 「酬進士楊瞻送別」

17) 『文選』 권33, 九歌, 「少司命」

시대에는 이미 무성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고려의 과거제도에는 詞賦가 출제되고 있어서 문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sup>18)</sup> 詞賦는 楚辭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의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 초사를 읽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李奎報는 문제작 「屈原不宜死論」을 주장하여 굴원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자기의 몸을 죽여서 仁을 이룬 사람이 있으니 比干과 같은 이가 그런 사람이다. 자기의 몸을 죽여서 節義를 이룬 이가 있으니, 伯夷·叔齊와 같은 이가 그런 사람이다. 비간은 紂의 시대를 당하여 그 악한 것을 보고 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간하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음이 그 처소를 얻은 것이며, 그의 仁을 이룬 것이다. 武王이 紂를 토벌함에 있어서 오히려 德에 비추어 볼 때에 참람된 점이 있었으니, 義士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孤竹君의 두 사람이 말을 붙잡고 말렸으며, 말려도 듣지 않자 그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죽어버렸으니, 이도 또한 죽음이 그 처소를 얻은 것이며, 그의 절의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楚의 屈原이 취한 태도는 이와 다르다. 죽음이 그 처소를 얻지 못하였고, 다만 그 임금의 악한 것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대개 참소하는 말이 임금의 총명을 어둡게 하는 것과 간사하고 아첨함이 바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고, 초나라의 임금이 나 신하뿐이 아니었다. 굴원은 올바르게 곧은 뜻을 가지고 임금의 사랑하는 대우를 받아서 나라의 정치를 오로지 도맡았으니, 같은 대열에 있는 동료들의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上官大夫의 참소를 당하여 왕에게 소의를 당하였으니, 이것은 예사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유감으로 여길 것이 못 된다. 굴원으로는 마땅히 이때에 있어서 왕이 깨우치지 못할 것을 알아차리고 종적을 감추고 멀리 숨어 있다가, 왕의 잘못이 시간이 오래 되면 차차로 없어지기를 기다렸어야 할 것이다. 굴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 다시 襄王에게 용납되게 하려 하다가 도리어 申尹인 子蘭에게 참소를 당하여 江潭에 추방되어 湘江의 죄수가 되었으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비록 어디로 숨어 버리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이리므로 수척한 얼굴로 못가에 다니며 시를 읊어 離騷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임금을 원망하는 비난과 풍자성을 띤 어구가 많았으니, 곧 이것은 또한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기에 알맞은 것이었고, 마침내는 다시 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려서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그의 임금을 나쁘게 여기기도

18) 李岩, 『朝鮮中古文學批評史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5, pp.250-253 참조.

록 하였으며, 초楚의 풍속은 그를 위하여 競渡의 曲을 만들어 그의 익사를 위로하기까지에 이르렀으며, 거의는 글을 지어서 물에 던져 그의 억울함을 조상하여 더욱 임금의 잘못을 크게 만세에 드러나게 하였으니, 상강의 물은 마르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임금의 죄악이야 어찌 없지겠는가. 또한 紂가 나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벌써 천하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비록 比干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불장군을 면치 못하여 만세에 비난을 받을 것이지만 武王은 大義를 들고 나섰고 조그마한 혐의는 문제로 삼지 아니하여 마침내 천하에 왕이 되었으며 공적이 만세에 베풀어졌으니, 곧 그의 덕은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크게 줄어든 것이 없다. 더구나 두 사람은 무왕의 신하가 아니면 곧 주의 신하였으니 자기의 임금을 토벌하는 것을 말리다가 죽어서 그의 절의를 이룬 것이니 무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懷王과 같은 이는 참소를 받아들여 어진 사람을 멀리하였을 뿐인데, 이때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일이면 어느 나라고 간에 없는 곳이 없었으니, 곧 생각하건데, 임금의 잘못이 그다지 심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굴원의 죽음은 그 정당한 처소가 아니었고, 그 임금의 나쁜 것을 드러내었을 뿐이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의 이 論은 굴원의 억울함을 씻어 주며 더욱 그 임금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행여나 뒤에 참소를 믿고 어진 사람을 배척하는 임금을 깨우쳐 주려 함이요, 본래 굴원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애석하다. 그의 죽음이 그 마땅한 곳을 얻지 못함이어. 슬프다.<sup>19)</sup>

- 1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22, 「屈原不宜死論」, “古有殺身以成仁 若比干者是已 有殺身以成節 若伯夷叔齊是已 比干當紂時 其惡不可不諫 諫而被其誅 是死得其所而成其仁也 虎王伐紂 猶有慙德 凡在義士 不可忍視 故孤竹二子 扣馬而諫 諫而不見聽 恥食其粟而死 是亦死得其所而成其節也 若楚之屈原 舉異於是 死不得其所 祇以顯君之惡耳 夫讒說之蔽明 邪諂之害正 自古而然 非楚國君臣而已 原以方正端直之志 爲王寵遇 專任國政 宜乎見同列之嫉也 故爲上官大夫所譖 見疏於王 此固常理而不足以爲恨者也 原於此時 宜度王之不寤 滅迹遠遁 混于常流 庶使其王之惡 漸久而稍滅也 原不然 復欲見容於襄王 反爲令尹子蘭所讒 放逐江潭 作湘之纍囚 至是雖欲遁去 其可得乎 是故 憔悴其容 行吟澤畔 作爲離騷 多有怨曠譏刺之辭 則是亦足以顯君之惡 而乃復投水而死 使天下之人 深咎其君 乃至楚俗爲競渡之曲 以慰其溺 賈誼作投水之文 以弔其冤 益使王之惡 大暴於萬世矣 湘水有盡 此惡何滅 且紂之惡 久已浮於天下 雖比干不死 未免爲獨夫而取刺於萬世矣 虎王舉大義忘小嫌 卒王天下 功業施於萬世矣 則其德不以二子之死大損也 況二子非虎王之臣也 乃紂之臣 諫伐其君而死 以成其節也 何與於虎王哉 若懷王則聽讒疏賢而已 當時此事 無國無之 原若不死 則王之惡 想不至大甚 吾故曰 原死非其所 以顯其君之惡耳 予之此論 乃所以雪原之冤 而益貶其君之惡 庶以諷後之信讒斥賢耳 非固譏原也 惜也其死之非其所宜也 嗚戲”

고려시대에 이규보는 굴원이 떡리수에 몸을 던져 죽은 것에 대하여 마땅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론이 굴원에 대해 긍정적인데 이규보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어 문제작으로 부각된다. 이규보는 굴원의 죽음이 殺身成仁의 인과는 같지 않다고 보고 義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역사적 입장과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猶堪笑三閭      오히려 삼려대부가 쓸쓸히  
冷淡餐秋菊      가을 국화 먹고 지낸 것을 비웃는다.<sup>20)</sup>

이규보는 여기서도 離騷의 “아침에는 木蘭 위의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국화꽃을 먹는다.”는 부분을 들어 비판적 시각으로 보았다.

이규보는 그의 시가에 초사를 인용한 흔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 신라와 고려에서는 굴원의 삶과 초사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으며 초사를 비교적 순수한 감정의 유로로 보고 순수문학적으로 비판하고 수용했다.

고려말기에 전래되기 시작한 성리학은 조선건국의 토대가 되었으며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하는 유교 국가였다. 따라서 고려 말과 조선초기의 초사 수용은 유가적인 명분론에 입각한 이해와 감상이 주를 이루었다. 이때부터 초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용이 시작되었다. 李齊賢, 李穀, 李穡, 鄭夢周, 李崇仁 등 고려 말의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의 시에 초사가 인용된 흔적이 두루 나타난다. 굴원의 고결한 인품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초사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수용했다.

益齋 李齊賢은 다음과 같이 초사를 활용해서 시를 지었다.

二女湘江淚      두 여인이 뿌린 상강의 눈물과  
三閭楚澤吟      삼려대부가 초나라 澤畔에서 읊은 노래<sup>21)</sup>

2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7, 「走筆謝希禪師惠」

舜 임금의 두妃 娥皇과 女英도 순 임금이 죽은 곳에 찾아와 비탄 끝에  
 상강 물에 빠져 죽었다. 三閭大夫 역시 세상을 비탄하다가 湘江 汨羅水에 투신  
 자살했다. 익재는 굴원의 行吟澤畔하던 상수를 소재로 시를 읊었다.  
 원나라 과거에 급제하였던 李穀은 「寄同年南翰林」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濯纓笑我滄浪曲      탁영이란 나의 창랑 곡조는 비웃음을 받고  
 給札看君芍藥吟      급찰의 그대 작약 노래는 우러러보는 세상<sup>22)</sup>

혼란한 세상을 초탈하여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楚辭  
 「滄浪歌」는 비웃음을 당하고, 唐玄宗이 沈香亭에서 楊貴妃와 함께 木芍藥을  
 완상하다가 金花箋을 하사하며 翰林 李白을 불러 시를 짓게 하자 그 자리에서  
 「清平調詞」3장을 지어 바쳤다는 일화<sup>23)</sup>처럼 그 작약의 노래는 대우받는 세상  
 이라고 고려말기의 풍속을 초사에 견주에 비판하고 있다.

고려 말기는 혼란기를 틈타 참소와 모함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로 굴원의  
 시대상황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불교적인 입장에서 굴원을 바  
 라보는 입장과 유교적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려말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성리학자들의 초사 수용은 유교적 의리  
 명분에 입각해서 굴원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李穡의 「流水辭」,  
 「山中辭」, 「永慨辭」, 鄭夢周의 「思美人辭」, 李崇仁의 「哀秋夕辭」 등은 楚辭에  
 서 비롯되는 辭賦文學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 3. 조선 초기의 초사 수용

조선이 건국되면서 건국초기는 비교적 초사의 수용은 침체되고 있다. 그러  
 나 초사는 꾸준히 읽히고 있었으며 서서히 굴원의 초사에 대한 인용이 무르익

21) 李齊賢, 『益齋集』 권10, 「瀟湘八景」  
 22) 李穀, 『稼亨集』 권15, 「寄同年南翰林」  
 23) 「楊太眞外傳」.

어 갔다. 초사는 조선초기부터 선비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에게 읽히던 초사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건국시기에는 분위기 상 초사가 좀 뜸했던 것도 사실이다. 태종은 초사를 읽힐 것을 주장하였다.

三館의 직사를 받은 자로 하여금 四書 五經 『通鑑』 『大學衍義』 『楚辭』, 그리고 韓柳의 문장에 모두 다 통달하게 하고, 成均館 藝文館 校書館의 長官이 때 없이 勸勉하라<sup>24)</sup>

태종이 학문과 시학을 권장하면서 초사를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세종 때에 이르러 집현전 대제학 李孟叟 등이 시학을 진흥시킬 조건을 아뢰었다.

成均館 생원은 經學을 익히는 여가에 겸하여 楚辭, 文選, 李白杜甫韓愈柳宗元歐陽修王安石蘇軾黃庭堅 등 역대 諸家의 詩를 익히게 하여 春秋로 의정부 육조의 都試에 혹 詩를 짓게 하고, 四畝學堂과 外方의 鄉校에서도 또한 이에 의하여 講習하고, 아울러 書徒의 이름을 기록하여 每陽 都會를 당할 때마다 또한 考講을 가할 것<sup>25)</sup>.

세종 때에는 시학의 진흥을 위해 초사를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세종 10년에는 경연에 나아갔다. 좌대언 金赭에게 명하기를, 『文章正宗』과 『楚辭』 등의 서적은 공부하는 사람은 불가불 알아야 하니 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印行하게 하라.”하였다.<sup>26)</sup> 그리고 세종11년에는 집현전 관원과 동반 兪기 부정 이상에게 『초사』를 나누어 주었다.<sup>27)</sup>

세종은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그가 세자로 있을 때에 매번 글을 읽을 때면 반드시 1백 번을 채우고, 『左傳』과 『楚辭』 같은 것도 또 1백 번을 더

24) 『朝鮮王朝實錄』 태종11년, 11월 1일 조항 참조.

25) 『朝鮮王朝實錄』 세종17년, 6월 26일 조항 참조.

26) 『朝鮮王朝實錄』 세종10년, 11월 12일 조항 참조.

27) 『朝鮮王朝實錄』 세종11년, 3월 18일 조항 참조.

읽었다<sup>28)</sup>라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초사는 제왕들의 수업에도 활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초사는 내용 상 왕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신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를 수가 있다.

성종 때에 와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永安道觀察使 李繼孫이 『四書』 『五經』 『通鑑』을 하사하여 都會所의 儒生들을 가르치도록 청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명하여 아뢴 바대로 하사하게 하고, 또 『小學』 『楚辭』 『柳文』 『古文眞寶』 등의 책을 하사하게 하였다.<sup>29)</sup>

성종은 『초사』 책을 하사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조선 전기에 시로 이름을 떨쳤던 訥齋 朴祥은 비록 바쁜 벼슬을 맡았을 때에도 밤이면 반드시 離騷經을 한 번 외우고 近律 한 수를 지은 연후에야 취침하였다고 한다.

매월당 김시습은 그의 작품에서 자기가 마치 굴원의 화신인 것처럼 비의 시켰다.

尹春年(1514~1567)은 「매월당선생전」에서 김시습이 달밤에 「離騷經」을 외우다가 문득 울기도 하였다고 했고, 율곡은 매월당이 달밤을 만나면 반드시 「離騷」를 읊었고 다 읊고 나면 반드시 통곡하였다<sup>30)</sup>고 한 언급에서 보듯 김시습은 「離騷經」을 비롯한 楚辭를 많이 인용하며 굴원의 처세관을 빌어 자기의 비분강개를 읊었다. 그의 시에는 楚辭를 수용하여 그의 비분을 읊은 시가가 상당수 보인다. 매월당 시에 자주 언급되는 淸味는 굴원의 행적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그의 세상을 분개하고 시속을 미워하는 시들 속에서 비장미가 감지된다.

그는 「早行」이란 작품에서 “떠돌이 신세 병도 많아서 / 하염없이 楚辭만

28) 許葑, 『海東野言』 1. 世宗; 世宗天性好學 其未出閣 每讀書必百遍 於左傳楚辭 又加百遍.

29) 『朝鮮王朝實錄』 성종2년, 7월 26일 조항 참조.

30) 尹春年, 「梅月當先生傳」

노래하네 (客路身多病 無斷詠楚辭)<sup>31)</sup>라고 읊었다. 또 「甘泉」이란 작품에서는 “애달파라 사람의 세상일이여 / 그 누가 굴원의 갠 것 알아주리(還嗟人事 雖識屈原醒)”라고 하여 굴원의 楚辭를 애용하고 있다. 또 “삼려대부 아직도 초나라를 못 잊은 듯 / 원수, 상수 못가에서 근심을 지키는 것과 같다(還似三閭猶戀楚 沅湘澤畔守憂思)<sup>32)</sup>”라고 노래하여 굴원의 지조와 절개의 방랑행적을 자기의 방외생활과 연결시켜 놓고 있다.

윤리와 예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며 방외의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離騷」의 비장미는 淸의 미의식과 교용되어 산수적인 미의식에 함의되어 표출되고 있었다.

매월당은 굴원이 초나라를 못 잊어 澤畔을 거니는 상황이 자신이 조선 정계를 못 잊어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매월당의 시에는 굴원과 같은 탄식과 비탄조의 시가 자주 발견된다. 매월당의 시에는 楚辭의 미학적 수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굴원의 「離騷」에 나타난 狂의 미의식을 모두 수용한 매월당은 조선 세조의 불의로 얼룩진 가슴속에 아픈 분노와 절실한 근심을 폐부로부터 표출해 내었다. 김시습의 이 비통하고 광기어린 우울한 절규는 엄숙하고 장엄하기만 하던 당시 사장의 문체를 해체시켰다.

이 당시의 시가적 경향도 은둔과 반발, 모방과 기피, 존경과 원한이 서로 뒤엉켜 다양한 정신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양상이었다.

매월당은 동방의 굴원이었다. 그가 세조시대를 비분강개 하여 방외에서 유랑한 것은 굴원의 「離騷」를 비롯한 楚辭를 통하여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매월당은 굴원의 이소에서 유랑과 청림이 교차된 狂拙의 미의식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키웠다. 그의 시에서도 이소에 나타난 난초의 향과 같은 청결을 추구한 淸美가 넘치는 작품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31) 『매월당시집』 권1, 「早行」

32) 『매월당시집』 권3, 「一十月初吉 見殘菊寒蜂 有感」

사가 서거정은 「離騷」에 깊이 심취하였으며 「離騷」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구들을 그의 작품에 용해시켰다. 그의 시와 사부에는 「離騷」의 과편들이 앙금처럼 녹아있다. 서거정은 강희맹이 지은 「北征錄」을 읽고서 평하기를 “근자에 새 詩稿를 받들어 焚香하고 거듭거듭 되풀이하여 여러 날을 읽는 동안에 심지어는 寢食마저 잊은 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으니,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도 좋아한단 말인가. 景醇은 삼가 속으로 생각하건대, 이 시편은 비록 작지만 온갖 오묘한 정취를 완전히 갖추었으니, 그 율격사용의 精嚴함으로 말하자면 마치 高人義士가 있어서 예의를 담론하면서 법도를 넘지 않은 것과 같고, 비장한 회포의 慷慨함으로 말하자면 마치 楚澤의 외로운 신하가 눈물을 흘리며 읊조리면서 원망은 하여도 亂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과 같으며, 장편 대작으로 말하자면 마치 淮陰의 노련한 장수가 軍門에 앉아서 계략을 짜내면 백만의 精卒들이 일사불란하게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똑같다.<sup>33)</sup>”고 하며 「離騷」의 정취가 있다고 극찬하였다. 서거정은 강희맹의 북정록을 읽고 이소의 비장미와 怨誹而不亂의 원망의 미학이 들어 있다고 비평하였다.

조선 시인들은 유배의 정감을 시로 형상화 할 때는 반드시 「離騷」의 이미지를 수용한다. 曹偉(1454-1503)의 만분가는 유배가사의 효시로 알려진 작품으로, 작가가 1498년(연산군4)의 무오사화에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전남 순천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幽蘭을 것거 쥐고 님 겨신 데 바라보나”라는 구절은 초사를 인용한 표현이다. 여기에는 충신연군지정이 들어 있다.

#### 4. 조선 중기의 초사수용

조선 전대를 거쳐 초사에 가장 심취한 문인은 계곡 장유였다. 谿谷 張維(1587~1638)는 “賦라고 하는 것은 古詩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대개 六義의 하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시인의 부는 아름다우면서도 법도가

33) 서거정, 『四佳詩集』 권7, 「讀北征錄」[姜希孟]

있어 그 표현이 雍容하고 典雅하며 말은 卑近해도 뜻이 深遠하다. 그러므로 六經의 반열에 끼일 수 있어 博士의 관청에서 소장해 두고 學士와 대부들로 하여금 대대로 이 규범을 지키면서 익히게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 시가 변화하여 離騷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離騷」는 남쪽 楚나라 지방의 怨慕하는 聲音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 音節이 빠르고 느린 측면에서 보면 물론 三百篇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겠지만, 예컨대 그것이 情性에서 발로된 것이면서도 바로잡을 목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인간의 양심과 사물의 법도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일을 돕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니, 그것이 『詩經』의 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詞賦의 元祖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sup>34)</sup>”라고 하면서 초사에 전아한 미의식을 견지하면서도 시경과는 또 다른 미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문학적 경향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소를 이소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谿谷은 굴원의 楚辭 「天問」편을 모방하여 楚辭의 문체로 「續天問」을 지었다. 그 서문에서 谿谷은 다음과 같이 「續天問」의 제작과정을 피력하고 있다.

“옛날에 屈原이 추방당한 뒤에 산과 강을 방황하면서 天問 한 편을 지었는데, 이는 대체로 하늘에 묻는 형식을 취해 스스로 현실을 개탄하면서 옛날에 대한 감회를 풀어 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괴상하고 이치로 볼 때 지나친 점이 있었지만 그 글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그 뜻 또한 슬펐기 때문에 先儒들도 괴이하고 지나치다고 하면서도 배척하지는 않았었다. 내가 일찍이 읽어 보고는 그 문장을 좋아하게 되고 그 뜻을 완상하면서 미상불 강개하여 탄식하였는데, 단정히 앉아 일들을 살펴볼수록 더욱 感發되는 점이 있기에 마침내 그 문체를 본떠 한 편의 작품을 지었다. 대체로 오묘한 조화, 만물의 이치, 斯文의 興亡, 道術의 邪正, 幽明·禍福의 연고, 世道·人心의 변화 등이 이 속에 얽히고설켜 있는데 의혹을 가질 만하고 걱정할 만한 것들은 모두 거론하며 문제 삼으면서 句마다 韻을 달았다. 그러나 荒誕하고 神怪스러운 점과 屈子

34) 張維, 『谿谷集』 권5, 「揚馬賦抄序」, “賦者 古詩之流 蓋居六義之一焉 詩人之賦 麗以則 其言雍容典雅 辭近而指遠 故能列於六經 藏於博士官 學士大夫世守而習之 詩變而離騷作 離騷者 南楚怨慕之聲也 其音節疾徐 固變於三百篇 若其發於情性 依於規諷 有補於民彝物則之重 無二致焉 卽其餘事 亦足爲詞賦祖矣”

이미 물어보았던 것들은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다. 모두 40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개의 韻을 달았는데 천문을 본떠졌기 때문에 제목을 ‘續天問’이라고 하였다.<sup>35)</sup>”

위의 인용문에서 「續天問」에 대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0장 92개 韻의 장편저작을 지면상 본문에 소개할 수는 없지만 谿谷이 楚辭를 수용하면서 荒誕하고 神怪스러운 점과 屈子が 이미 물어보았던 것들은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谿谷은 굴원의 楚辭를 전고로 쓰면서도 자기 시대의 반영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뜻을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谿谷은 楚辭 작품의 전체 틀을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楚辭의 문체를 구사하였다. 「續天問」은 谿谷이 쓴 楚辭로서 그의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조선 중기에는 초사의 수용이 무성하게 이루어진다. 조선의 16세기는 주자학이 팽배하던 시기로 강호가도와 산수시가로 자연미를 새롭게 발견해 가던 시기이다. 이시기 어부사를 비롯한 초사의 수용은 다분히 주자학의 영향 하에 유교적으로 수용되고 비판되었다.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孟子·離婁上』, 『楚辭·漁父』-

공자시대부터 존재한 이 구절은 맹자와 거의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굴원에 의해 어부사로 수용되었으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濯纓’이란 시어는 갓끈을 씻는다는 말로,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데서 나온 것으로 조선의 사림과 선비들이 초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구이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은 호를 탁영으로 삼았고, 퇴계는 도산잡영 기문에서 도산을 돌아 흐르는 낙천(낙동강 지류)의 주변을 묘사하여 “물이 깊어 배가 다닐 만한데, 금 같은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디차다. 여기가 이른바

35) 張維, 『谿谷集』 권1, 「續天問」.

濯纓潭이다.”라고 하였다. 퇴계는濯纓潭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漁父當年笑獨醒	어부가 당시에 술 깬 이를 비웃었으니
何如孔聖戒丁寧	공자께서 경계하신 말씀과 정녕 어떠한고
我來叩柵吟風月	내가 와서 노를 두드리고 풍월을 읊으니
却喜清潭可濯纓	더욱 기뻐라 맑은 못에 갓끈 씻을 수 있음이

어부는 屈原의 「漁父辭」에, “굴원이 어부를 만나서, ‘세상 사람이 다 취하였는데 나만 홀로 깨었으므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였다.’ 하니, 어부가, ‘세상 사람이 다 취하였다면 술찌꺼기라도 먹어 같이 취하지 아니하고 왜 추방을 당하였는가.’ 하고는, 돛대를 두드리고 가면서, ‘滄浪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탁하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 하였다.”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공자가 경계한 말이란 『孟子·離婁上』에,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다.’ 하니, 공자가 듣고 제자들에게, ‘애들아, 들어라. 맑으면 갓끈을 씻고 탁하면 발을 씻는다 하니 이것은 창랑수의 맑고 탁하기에 달려 있구나.’ 하였다.”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윗 구절의 ‘옛사람 맘’은 굴원이나 공자 및 두 사람의 마음을 터득했던 퇴계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면 공자시대에도 이 구절은 존재 했으며 굴원 이전에 이미 초사 어부가의 형식이 존재 했던 것이 증명된다.

퇴계와 교류로 유명한 기대승은 퇴계의 탁영담을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潭上行吟悅醉醒	못가 거닐면서 읊으며 취했다 깨곤 하니
潛思明訓意無寧	맑은 훈계 생각하면 마음 불안하여라
縱然自取由清濁	그러나 스스로 취함 맑고 탁함에 있으니
今日眞堪濯我纓	오늘은 참으로 내 갓끈을 씻을 만하네 <sup>36)</sup>

36) 奇大升, 『高峯集』 권1, 「濯纓巖」.

이 시는 굴원의 어부사를 함의하고 있다. 어부사는 조선 중기 사인들이 흠모하였던 초사이다. 16세기에 농암 이현보의 어부가를 비롯하여 고산 윤선도의 어부가의 형상은 초사의 어부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퇴계는

罇前莫厭寂寥詠 술동이 앞에 두고 홀로 읊음 싫어 말라  
猶勝楚客悲吟楓 단풍을 슬퍼하던 초객보다 나으리라<sup>37)</sup>

초객은 屈原으로, 그가 지은 『楚辭』에, 강가의 단풍을 읊은 것이 많았다는 것을 주목해내고 있다. 退溪는 또

靈均不是能言道 굴원이 원래 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면  
千載如何感晦翁 어이하어 천년 뒤에 주희가 느끼겠나<sup>38)</sup>

라고 하여 굴원의 행위와 초사에 유가적인 도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靈均은 屈原의 자이고 그가 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면, 晦翁 즉 주희가 『楚辭』를 무엇 때문에 주석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퇴계는 주희가 초사집주를 애써 지은 것은 유가의 도를 실현함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퇴계는 초사를 도학 즉 유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리학의 바탕위에서 초사를 전망한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퇴계학파들의 초사에 대한 수용은 다분히 성리학적이며 주자의 『초사집주』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다. 퇴계를 위시한 조선 사인들은 論語의 흥관군원을 유교의 대표적인 시관으로 여겼으며, 楚辭에서는 ‘怨而不諱’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때로는 유교적인 세계관에 젖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원망의 미학, 怨而不諱! 원망은 하지만 비방은 하지 않는다. 조선 사인들의 楚辭 수용은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았으며, 그것은 중용의 사상과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37) 李滉, 『退溪集』 권2, 「杏花」

38) 李滉, 『退溪集』 권4, 「山居四時各四吟」

서애 유성룡은 시교설<sup>39)</sup>이란 제목으로 공자의 시관을 대변하고 도학적 문학관을 대표하는 興觀群怨<sup>40)</sup>의 입장에서 시에 대한 효용론을 밝힌 적이 있다. 보건대, 시의 말들은 감발하고 흥기함이 한결같지 않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함이 다르지만, 자신에게 절실하지 않음이 없다. -중략-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시는 원망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망은 군자의 일이 아닌데, 그래도 性情의 올바름을 볼 수 있겠는가? 하기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 뜻이 깊으니, 천박한 견식으로는 미칠 수 없다. 대저 사람이 사람된 소이는 다만 부자·군신·부부·형제·붕우가 서로서로 친애하는 사이에 惻隱·忠厚한 생각이 녹아 관통하고 두루 흘러 마치 초목이 생기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데 있다. 설혹 불행하게도 틈이 생겨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신하는 임금에게 버림받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형제가 서로 기뻐하지 않으며, 붕우가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하는 것도, 인정이 반드시 이르는 바이요, 천리의 당연한 바이다. 오직 시의 말은 온유하고 돈후하여 스스로 그 마음의 지성을 다할 뿐이고, 激發하여 지나치게 심한 말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를 귀하게 여겨 원망할 수 있다.” 서애는 흥과 원만을 가지고 시를 논했다.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대표적인 시관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목했지만 이처럼 절실하지는 못했다. 서애는 여기서 온유돈후의 문예미학을 도출해 내었다.

서애는 훌륭한 시론가였다. 그는 또 屈原의 ‘離騷經’, ‘九歌’, ‘九章’ 등의 楚辭에 대한 글소의 문예를 비평하였다. 주자는 “글원의 잘못은 지나친 忠에 있다.”는 주자의 『楚辭集註』를 바탕으로 대저 도는 중용을 지극한 것으로 삼아 희로애락이 다 天然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모두 정도가 아니어서 다 中을 잃은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애는 유교경전을 바탕으로 비평을 하며 유교경전을 들어

39) 柳成龍, 『西厓集』 권15, 「詩教說」.

40) 『論語』, 「陽貨」,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邇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문예미의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서애는 중화의 미학을 중시한다. 굴소의 미학은 온유돈후에 지나치고 중화의 미의식에 지나치다고 비평했다. 서애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정서의 정과정곡, 그리고 도은 이승인의 시가 「離騷」의 시취와 비슷함을 두고 자신의 처지와도 관련이 있는 굴소의 미학을 혹평했다.<sup>41)</sup> 주자의 『楚辭集주』를 애독한 서애는 굴원의 楚辭보다는 정과정곡이나 도은의 시가 더 낫다는 것이다. 이것은 楚辭에 대한 도학비평이며 성리학이 문예미학의 비평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鶴峰 金誠一은 “천애에서 쫓겨난 객 혼 일찍이 끊겼는데 / 봄풀은 만리토록 왕손을 슬퍼하네(天涯曾斷逐客魂, 春草萬里哀王孫)<sup>42)</sup>라고 읊었는데, 여기서 왕손은 楚 나라 때 비방을 당해 유배되어 떠돌다가 湘水에서 죽은 屈原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고향을 떠난 나그네를 가리킨다. 고향땅을 떠난 사람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경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淮南 小山이 지은 楚辭인 招隱士의 “왕손의 노닐이여 돌아가지 않고, 봄풀이 자람이여 우거졌도다(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에서 온 말이다.

志士尋常談笑時    뜻 있는 선비들 평상시 담론할 때에  
若讀離騷淚必垂    離騷經 읽으면 반드시 눈물 떨어다오<sup>43)</sup>

여헌 장현광의 이 시구는 조선 사인들의 일상 속에 초사가 얼마나 많이 읽히고 어떻게 읽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눈물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楚辭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미의식은 바로 비장미이다.

農巖 金昌協 참으로 朱夫子의 “당대에 퍼지 못한 屈原의 답답한 심경이 또 매몰되어 후세에 밝혀지지 않았다.”<sup>44)</sup>라는 주희의 『楚辭集註』 서문에 있

41) 柳成龍, 『西厓集』 권15, 「離騷」.

42) 金誠一, 『鶴峯逸稿』 권1, 「三峽啼猿」.

43)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권1, 「和五月五日憶三閭大夫」.

44) 金昌協, 『農巖集』, 속집 하권, 「上尤齋先生書」

는 말로, 後漢시대 王逸이 지은 『楚辭章句』를 비판한 말을 인용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朱子大全』의 보급으로 주희의 『초사집주』가 많이 애용되면서 초사에 대한 수용도 그 극치를 이룬다. 『고문진보』의 보급도 「어부사」와 「이소」에 대한 독자층을 넓히며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초사수용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임상덕이 쓴 「小兒讀書次第」에는 楚辭九歌, 九章, 九辯, 離騷及選賦를 언급하고 있는 것<sup>45)</sup>으로 보아 조선 사인들의 공부 과정에는 楚辭가 들어 있었으며, 비교적 어릴 때부터 楚辭를 애독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선비들은 楚辭를 올바로 읽고 해독하려고 애썼다.

정조가 故 참관 柳夢寅에게 증직하고 贈諡하라는 하교에 매월당과 유몽인의 楚辭에 대한 수용의 양상을 비판하였다. 정조는 “대개 신하의 충성과 여인의 정절은 마찬가지로 이다. 임금이 비록 무례하다 해도 신하는 충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또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같아 남편이 비록 어질지 못하더라도 여자는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屈原은 楚나라의 懷王을 임금으로 섬기다가 떠나가게 되었을 때 못가에서 읊조린 것이 슬프게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이었는데, 문득 모두 부부에 비기었다. 더구나 고 참관 유몽인의 「老婦詞」는 離騷經이 남긴 뜻을 깊이 체득하여 김시습의 시와 백중지세가 되니, 신하와 여자로서 두 마음을 먹는 자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것이 똑같이 이 절조다. 비분강개하거나 조용히 하는 것 사이에는 굳이 우열을 나눌 필요가 없으나 조용히 하는 것은 비분강개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 지난번에 유몽인의 억울함을 씻어 줄 것을 재가하는 말 중에 특히 端廟의 여러 신하 가운데 김시습 한 사람만을 끄집어낸 것은 대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유몽인은 일찍이 이조 참관으로 있다가 대제학으로 올라갔다.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속세를 따랐다면 무슨 벼슬인들 하지 못하였겠는가.

45) 林象德, 『老村集』 권4, 「小兒讀書次第」, “... 古文眞寶後集 兼誦杜七韓五長篇, 楚辭九歌, 九章, 九辯, 離騷及選賦”

그러나 서로 갈라져서 다투는 흉악한 의논을 돌아보고는 명예와 이익을 헌신 짝처럼 던져 버리고 기꺼이 산꼭대기와 물가에서 스스로 방랑하였으며, 시를 잘하는 승려나 도를 깨달은 승려와 함께 어울려 승려처럼 지내었다. 이는 김시습이 세속을 하찮게 여기고 세속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려 한 淸狂다운 본색과 같은 것이었다.<sup>46)</sup>라고 하였다.

정조는 유몽인을 방외의 인물로 파악하면서 그의 「노부사」에 비분강개하는 방외의 미의식과 굴원의 「離騷」를 본받은 淸狂의 미의식이 함의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楚辭의 내용은 『詩經』과 궤를 같이하는 성격도 들어 있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초사를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평가한 것이며, 성리학이 팽배한 조선에서는 주자집주의 영향이 컸다. 조선 시인들의 초사에 대한 논의는 주자의 초사집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굴원의 楚辭는 그 성격이 다양하여 유교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는 전아한 미의식과 그렇지 않고 기이함을 표현한 낭만주의 사조로 보는 견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조선 시인들도 이점에서는 서로 그 수용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조선의 문사들은 어릴 때부터 楚辭를 읽었다. 조선 시인들에게 楚辭란 「離騷」를 비롯한 九歌 九章 등 楚辭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

申翼聖(1588~1644)의 행장에 ‘10세에 논어와 「離騷」를 배송할 정도로 읽었다’는 언급<sup>47)</sup>과 象村 申欽(1566~1628)의 행장에도 “10세 때 論語와 離騷를 몇 차례 읽어 보고는 곧장 背誦하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참찬공이 더욱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sup>48)</sup>고 하였으며 또, 증봉 조현의 행장에도 “선생은 밤마다 반드시 中庸·大學·離騷經과 出師表를 읽었다. 읽다 보면 비분강개하여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기가 일쑤였다.”고 하였다.

46) 正祖, 『弘齋全書』 권34, 教5.

47) 申翼聖, 『樂全堂集』 권13, 「先府君領議政文貞公行狀」, “... 十歲讀論語, 離騷。數遍即背誦 ...”

48) 申欽, 『象村集』, 부록1, 「행장」 참조.

참소를 입고 조정에서 쫓겨난 조선 사인들의 작품에는 초사의 정취가 반드시 들어 있었다. 일찍이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忠臣戀主之詞로서 松江 鄭澈의 關東別曲과 두 美人曲은 東方의 離騷라고 극찬 했으며, 우리말로 된 離騷라는 입장에서 ‘諺騷’라고도 하였다. 金尙憲은 「송강집발」에서 “松江의 충성과 재주가 屈原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고 불행하게 당한 일의 슬프고 민망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 그 글이 離騷처럼 뒤에 전해져서 사랑받고 아껴질 것은 의심이 없다”고 하였다.<sup>49)</sup> 여기에 대해 北軒 金春澤은

그가 임금의 내침을 받고 가슴이 답답한 나머지, 君臣의 헤어지고 만나는 것을 남녀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그 마음이 충성되고 그 뜻이 고결하다. 우리 西浦翁 金萬重도 그 제목을 손수 쓰기를 ‘諺騷’라 하였으니, 역시 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옳을 것이다.”고 하였다. 나도 그 끝 부분의,

寧死爲花蝶     아예 죽어 꽃나비가 되어  
花樹枝枝坐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서  
願以香翅掣君衣   향긋한 날개로 그대 옷에 스치리  
君雖不知吾     님은 비록 날 모르는 체해도  
但願長隨君     나는 영원히 님의 뒤를 따르리

라는 구절을 애송해 왔었는데, 복헌의 말이 거의 잘 표현되었다.<sup>50)</sup>

송강은 초사를 바탕으로 사미인곡 등 많은 문학 작품을 지었다. 김만중이 말한 동방의 이소란 말은 정철의 초사 수용의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서 한 말이다.

신흠은 그의 「坎止亭上梁文」에서 “욕심이 없이 보아 이미 만물의 묘리를 다 알고 액운을 만나서 머물러 마침내 한 골짜기에 노닐자던 맹서를 이행하였다. 현실에 대한 만족이 완전하다면 어디에 처한들 무엇이 누추할 것인가. 주

49) 金尙憲, 『淸陰集』 권39, 「松江遺稿跋」

50)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 「觀讀日記」 9월11일 참조.

인의 몸은 稷·契설에게 허여하고 뜻은 巢父·許由와 겨루는데, 구름길을 평탄하게 걸어 일찍이 璿霄의 卿月이 되었고, 덩굴 장막에 마음이 쏠려 오랫동안 江湖의 客星을 꿈꾸었다. 그런데 어찌 吳燕의 등우리가 불에 탈 줄 알았으랴. 마침내 楚蘭을 허리춤에서 풀어 놓게 되었다. 향리로 돌아오니 소나무며 가래나무가 무성한데 비록 산을 살 돈은 모자라지만 앓을만한 방이야 없을 수 있겠는가. 거북점이 뜻에 따르고 숫가지점이 마음에 맞아 隱士가 바르게 사는 것이 길하고 들이 넓고 숲이 특 트여 편안한 집의 형세를 얻었다.<sup>51)</sup>”라고 했다. 여기에서 ‘초란은 楚나라의 충신 屈原이 간신들의 참소로 인해 懷王에게 쫓겨나 지은 離騷經에서 자신이 지닌 덕을 표현한 대목에 “항기로운 江蘺와 白芷를 걸치고 가을 난초를 꼬아서 허리에 찻네.” 한 데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상춘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쫓겨난 것을 상기시키며 굴원의 行吟澤畔을 떠올리며 은둔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여기에는 유배의 아픔과 은둔의 정감이 함의되어 있다. 또 南谷行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尋奇忙着謝公屐    좋은 경치 찾으러 사공의 신 바빠 신고  
漫興却點離騷字    절로 흥 나면 「離騷」의 글자에 점을 찍는다<sup>52)</sup>

이것은 상춘이 삭탈 관직당하고 「離騷」를 즐겨 읽고 감동적인 구절에 점을 찍어가며 楚辭에 골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굴원에 비의하며 시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청음 김상헌은 白沙가 北靑으로 귀양 갈 때에 시를 지어 위로한 시의 일부이다.

九辯已無人    오늘날엔 「구변」 지을 사람 없거니  
大招誰再續    「대초」도 이제 누가 다시 이어 지으랴  
平生楚離騷    평생토록 초의 「離騷」 읊조렸으나  
今日不堪讀    오늘에는 그 글 차마 읽을 수 없네<sup>53)</sup>

51) 申欽, 『象村稿』 권30, 「坎止亭上樑文」

52) 申欽, 『象村稿』 권8, 「南谷行」

「九邊」, 「大招」, 「離騷」는 모두 초사의 편명이다. 이 시는 초사로 수를 놓았다. 九辯은 전국 시대 초나라의 시인인 宋玉이 屈原이 임금에게 물리침을 당한 다음 슬퍼하여 지은 부이다. 大招는 굴원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景差가 지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후대에는 범범히 죽은 사람을 혼을 부르거나 혹 애도하는 뜻으로 쓰인다. 누가 청음 앞에 귀양의 고통을 감히 말 하리오 김상헌의 유배를 표현하는 시에는 楚辭의 비장미가 넘쳐흐른다.

식산은 “시란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물상에 감응하는 것이고, 형태에서 감동하여 감탄하고 읊조리는 것이다. 감상함에 사특함과 올바름이 있고, 시어에는 선악이 있어서 본받을 것이 있고 경계할 것이 있다. 고로 시는 興起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詩經』 삼백 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무사라는 것은 모두다 교화를 위한 까닭이다.”<sup>54)</sup> 라고 하여 시의 의미를 정감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의 효용을 선악으로 구분하여 孔子의 시관인 ‘興觀群怨’으로 연결시키고, 『詩經』의 思無邪 정신을 강조하여 시론을 전개하고 있다.

「離騷」는 『詩經』의 시가 한번 변한 것이고 오언시는 「離騷」가 변한 것이다. 주자는 오히려 그 괴이하고 신이하며 원망하고 근심하고 격한 언사를 『楚辭集注』에 실었으며 또한 위아래의 고시를 취하여 楚辭의 뒤를 잇고자 하였으니 주자의 뜻은 반드시 소재가 있었다. 아! 우리 영남은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펴보면 중국의 巴漢關中과 같아서 떨어져 있는 것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江漢으로 떠를 두른 것 같다. 民物豊謠를 가지고 예악의 교화로 말한다면 중국의 鄒魯와 같아서 선왕의 유풍과 남은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 조종이 삼백 년 동안 배양한 것이 깊고 두터운 것이다. 영남은 한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훌륭한 학자, 나라의 동량재, 충효, 지조있는 열녀, 명행의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일어나 (중국의 추로를) 대신하기에 모자라지 않는다.<sup>55)</sup>

53) 金尙憲, 『淸陰集』 권8, 「奉贈白沙李相公謫北青」

54) 李滿敷, 『息山集』 권1, 「南風(并序)」, “詩者 人心之感於物 而動諸形 咨嗟詠歎 感有邪正 言有善惡 可法可戒 故曰 詩可以興可以觀可以言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皆所以爲教也”

식산은 「離騷」를 괴이하고 신이하며 원망하고 격한 언사가 있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시로 파악하였다. 서에는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충에 있다.”<sup>56)</sup>는 주자의 楚辭집주를 바탕으로 대저 도는 중용을 지극한 것으로 삼아 희로애락이 다 天然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모두 정도가 아니어서 다 中을 잃은 것이라고 평하였다. 식산은 이것을 발전시켜 楚辭를 이해하고 있다. 중화의 미의식과 온유돈후의 미의식이 서애를 거쳐 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갈암 이현일은 “굴원의 「離騷」는 비렴(바람의 신), 표풍, 운예 등을 가지고 뜻을 펼치려 한 것이다. 이것은 신령이 호위하는 뜻을 가탁하여 말한 것이다. 「離騷」는 처음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었다. 그것을 위하여 주해자는 표풍, 운예를 소인이라 하고, 달은 청백한 신하라 하고 바람은 호령하는 형상이라고 했다. 주자는 그 모든 것이 의리가 없는 것이라고 나무랐다.”<sup>57)</sup>라고 하였다.

## 5. 조선 후기의 초사 수용

연암 박지원은 초사를 이용하여 글을 재미있게 지었다. “鬻樂은 至誠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아버지도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요임금은 이로써 친하를 다스렸고, 순 임금이 이로써 어버이를 섬겼고, 우 임금이 이로써 水土를 다스렸고, 比干은 이로써 임금을 섬겼고, 屈原은 이로써 시속을 근심하였다. 長沮와 桀溺은 들에서 나란히 밭을 갈았으며, 劉伶과

55) 上全, “離騷爲詩之一變 五言詩爲再變 而朱子猶取其怪神怨懟激發之辭 既定著楚辭輯註 又欲取漢魏以來古詩 以附楚辭之後焉 朱子之意 其必有所在也 噫 維我東之有嶺南 以地勢觀之 猶中國之巴漢關中 隔以嶺函 而帶以江漢 以民物風謠 禮樂教化言之 亦猶中國之鄒魯 聖賢繼開 先王遺風餘教猶在者 此卽我祖宗三百年培養深厚 作一國之根本 弘儒碩輔忠孝貞烈名行之人 代不乏者也”

56) 柳成龍, 『西厓集』 권15, 「離騷」.

57) 李玄逸, 『葛庵集』 권19, 「愁州管窺錄」, “屈原離騷以望舒蜚康飄風雲霓之屬 託言神靈護衛之意 初無善惡之分也 爲之註解者 以飄風雲霓爲小人 月爲清白之臣 風爲號令之象 朱子譏其皆無義理”

阮籍의 무리들은 중신토록 술을 마셨으니, 비록 각자의 본성은 같지 않지만 또한 지극한 즐거움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sup>58)</sup>고 하였다.

연암은 ‘獨樂’의 기저로 굴원에게서는 시속을 근심한 것에 주목하였다. 독락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논어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人不知而不慍]’과 통한다. 선비가 혼자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지조를 세우고 어떻게 의리명분을 운운하며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독락은 중요한 체제이다. 연암은 굴원이 혼자일 때 시속을 근심한 것에 독락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굴원이 간신들 속에서 홀로 우뚝서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은 독락의 기저였다.

연암은 留守가 대궐에서 하사받은 굴 두 개를 보내 준 데 감사한 편지에서 “어찌 淮水를 건넌 티가 나는 것을 꺼려 하겠습니까만, 瑠瑠로써 갓고자 해도 頌 짓는 재주가 모자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sup>59)</sup> 하였다. 연암은 초시를 탐독했으며 『橋頌』을 읽었다. 이것은 屈原이 자신의 재주와 덕을 굴나무에 비유하여 그 지조와 절개를 노래한 楚辭 〈九章〉의 한 편인 『橋頌』을 의식하고 지은 것이다.

또, 정조 21년(1797) 7월 연암이 면천 군수로 임명되어 謝恩차 입시했을 때 정조는 “내가 전에 문체를 개변하라는 뜻으로 타일렀는데 과연 개변하였느냐?”고 물은 후, “내가 요즘 좋은 제목을 하나 얻어, 너를 시켜 한 편의 좋은 문자를 창작하도록 하고 싶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이방익의 사건을 문자화하도록 명하였다. 정조는 타락한 文風을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열하일기』의 문체를 문책한 뒤, 연암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려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연암은 「書李邦翼事」에서 “지금 방익이 閭門에서 옷을 털고 太湖에서 갓끈을 씻을 수는 있으나, 그가 岳陽樓를 보았다고 말한 것은 사뭇 꿈 이야기를

58) 朴趾源, 『燕巖集』 권1, 「獨樂齋記」

59) 朴趾源, 『燕巖集』 권3, 「謝留守送惠內宣二橋帖」

하는 것 같습니다.”<sup>60</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옷을 던다’는 것은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던다.[新浴者必振衣]’와 “滄浪의 물이 맑으니 나의 갓끈을 씻을 만하다.[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는 모두 屈原의 『楚辭』 「漁父辭」에 나오는 구절이다.

또, 연암은 “무릇 시대와 풍속을 걱정하고 가슴 아파한 사람으로는 역사상 屈原만 한 사람이 없는데도, 楚나라 풍속이 귀신을 숭상했기 때문에 귀신을 노래한 九歌를 지었다.”<sup>61</sup>)고 하여 楚辭 「九歌」를 언급하였다.

또, “屈原과 景差(송옥)의 일파도 미인을 노래하며 찬송한 시가 많았다. 지금 그대의 누각을 어찌 꼭 ‘취미루’라고 할 것이 있는가. ‘美人樓’라 이름 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저 하늘가에 마치 그림과 같이 긴 눈썹이 검푸르게 드리워져 있으니, 시인이 노래를 지어 읊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sup>62</sup>) 라고 하였다. 연암은 이렇듯 楚辭에서 소재를 취해서 글을 짓는 것을 즐겼다.

朴齊家(1750-1805)는 자신의 詩集에서 자신의 호를 ‘楚亭’으로 삼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楚辭』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데서 알 수가 있다.

濯魄空明夕      깨끗하고 밝은 밤에  
楚亭涉江誦      초정이 ‘涉江’을 읊는다<sup>63</sup>)

楚亭 朴齊家是 「涉江」을 애독했다. 「涉江」은 屈原의 『楚辭』 「九章」의 편명으로, 굴원 자신이, 풍모가 남달리 특이하고 뜻도 高遠한데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므로 강가를 배회하면서 小人들이 집권하고 君子들은 해를 당하는 것을

60) 朴趾源, 『燕巖集』 권6, 별집, 「書李邦翼事」

61) 朴趾源, 『燕巖集』 권7, 별집, 鍾北小選, 「嬰處稿序」

62) 朴趾源, 『燕巖集』 권7, 별집, 鍾北小選, 「翠眉樓記」

63)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9, 『雅亭遺稿』 詩 1, 「九日麻浦同在先宿內弟朴柳川宗山舍」

탄식한 내용이다.

어느 겨울 밤 한양 종로, 희미한 달빛이 어스름했다. 청년 박제가는 생각했다. ‘이러한 때 벗을 찾지 않으면 벗은 있어 무엇에 쓰겠는가?’ 그는 돈 10전을 움켜쥐고, 가슴엔 ‘離騷經’을 품은 뒤, 원각사 탑 북쪽에 있는 柳琴(1741~1788)의 집 문을 두드려 막걸리를 사 마셨다. 유금은 두 딸의 재롱을 보고 있다가, 박제가를 맞이하여 해금을 탔다. 잠시 후 눈이 내려 뜰에 가득 쌓였다. 흥이 다하지 않은 박제가가 시를 지어 제안했다.

來時月陰	올 적에는 달빛이 희미했는데
醉中雪深	취중에 눈은 깊이 쌓였네
不有友生	이러한 때 벗이 있지 않으면
將何以堪	장차 무엇으로 견딜 것인가
我有離騷	나는 ‘이소’ 지녔으니
子挾奚琴	그대는 해금 끼고
夜半出門	한밤중에 문을 나서
于李子尋	李子(이덕무)를 찾아가세.

李子는 역시 근처에 살던 이덕무(1741~1793)를 가리킨다. 이들은 이덕무의 집을 찾아가 또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해금을 쳐고 놀다가 잠시 눈을 붙였다. 유금은 이 날의 광경을 이렇게 그려냈다.

客持離騷經	손님은 ‘이소경’을 품에 지니고
訪我雪夜半	눈 오는 한밤중에 나를 찾았네
知君不平心	그대의 불평한 마음 나는 아노니
一彈廣陵散	廣陵散 한 곡조를 연주하노라. <sup>64)</sup>

박제가는 이덕무와 같이 해금의 명수 유금에게로 갔다. 유금은 광릉산 한 곡조를 구성지게 연주했다. 죽림칠현 중 한사람이었던 혜강이 만들었다는 광

64) 朴齊家, 『貞菴閣初集』, 「窄菴夜訪柳連玉詩 四首」

릉산 한곡은 시대에 저항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한량들의 거나한 술관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 분위기 속에서 굴원의 이소경이 읽혀진다. 이소경은 조선후기 문인들의 시대의 한탄과 우울한 심정을 풀어내는 명작이었다.

이덕무는 “평소 가슴속에 불평한 기운이 있으면 때때로 까닭 없이 슬픔이 생겨 탄식하는 것이 극도에 달하게 된다. 이때 離騷와 九辨을 외면 더욱 感觸하는 것이 겹쳐진다. 그때 마음을 가리얏히고 論語를 읽으면 그 기운이 반드시 풀어진다. 이처럼 여러 번 한 뒤에야 비로소 聖人の 기상이 천년 뒤에도 능히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와 같음을 알았으니 효험을 얻은 것이 매우 깊다. 일가 사람 중에 소년으로 慷慨한 자가 있는데 나와 밤에 이야기하다가 陸秀夫가 송나라 祥興帝를 업고 바다에 들어가던 일에 미치자 그가 문득 눈물을 흘리니 나도 또한 슬펐다. 한참 뒤에 曾點의 沂水에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는 글을 읽고서야 두 사람이 비로소 얘기하고 웃기를 진과 같이 하였다.”<sup>65)</sup>라고 하였다. 이덕무도 가슴에 울분이 찰 때마다 이소를 읽어 분위기를 전환하였다.

또 이덕무는 “흰 좀벌레 한 마리가 내 離騷經의 ‘秋菊·木蘭·江離·揭車’ 등의 글자를 갹아 먹어 버렸다. 내가 처음에는 크게 노해서 잡아 죽이려 했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또한 그 벌레가 능히 향기로운 풀만 갹아먹은 것을 기특히 여겼고, 따라서 특이한 향내가 그 벌레의 머리와 수염에 넘칠 것을 조사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동자를 사서 대대적으로 수색하게 했다. 만나질 만에 갑자기 좀벌레 한 마리가 말없이 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잡으려 했더니 흐르는 물같이 빠르게 달아나 버렸다. 번쩍거리는 분가루만 종이에 떨어졌을 뿐 좀벌레는 끝내 나를 저버렸다.”<sup>66)</sup>라고 하였다.

이덕무의 재치 있는 이소 독후감의 문예에 골계미가 넘친다. 그가 읽었던 이소경에서 이름 모를 난초의 향기가 진동하고, 이소의 환상적인 무드에 젖어

65)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3, 「蟬橋堂濃笑」.

66)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48, 「耳目口心書」.

서 「離騷」의 여백을 읽은 여유는 고상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덕무는 “문득 徐樓의 촛불 아래에서 離騷經을 우렁차게 읽을 때 星斗가 번쩍이고 賓主가 변색하던 것이 생각나는데, 기쁘고 슬픈 것이 어찌 그리도 다릅니까? 내가 이것은 즐기고 저것은 슬퍼해서가 아닙니다. 글이 신기하면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면 靈性이 보이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금하겠습니까? 67)”라고 하고 있다.

이덕무의 섬세한 미감은 離騷를 그냥 읽게 하지 않았다. 離騷를 우렁차게 읽으며 감동하는 속에 북두칠성이 떨어지고 이것을 듣고 있던 주객들은 감동하여 얼굴이 변색될 지경이었다. 누가 이소경을 이렇게 구성지게 읽어낼 수 있었던가? 이덕무의 離騷 사랑은 주변 사람들의 미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기쁨과 슬픔의 결을 달리하며 영혼을 읽어내는 연암그룹의 離騷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었다. 과연 이소가 그런 작품이었는가? 시어하나 시구하나에 이렇게도 슬픈 미학이 수를 놓고 있었던가? 초정을 비롯한 조선 후기 연암그룹 학자들의 초사 탐독은 그 결을 달리한다. 그들은 초사 25편 전편을 감미롭게 탐독하였으며 초사의 아름다운 시어들이 그들의 시집에 앙금처럼 녹아서 미를 발하고 있다. 우리 한문학은 이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초사를 읊었다. 조선의 유배시기에는 초사가 인용된다. 그의 유배지의 정감을 가장 잘 노래한 수작은 이 편일 것 같다.

水盡南天信使稀 물 다한 남쪽 하늘엔 소식도 드물도다  
秋來誰製芰荷依 가을이 오면 누가 芰荷依를 지어 주리오  
無因鼓柁江潭去 뱃전 두드리며 강호로 떠날 노가 없어  
遙唱滄浪對夕暉 멀리 석양을 바라보며 창랑가를 부르노라<sup>68)</sup>

67)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16, 「尹曾若」

68)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7, 「獨坐吟」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초사를 빌어 그 비창의 심정을 노래하며 嗚咽하고 있다. ‘芰荷衣’ 이것은 楚辭 ‘離騷’에 “연잎으로 저고리 해 입고, 부용으로 바지 만들어 입네[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시구는 조선 시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시구이다. 다산도 자주 이 시구를 전고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세상을 등지고 싶은 체념의 이픔을 노래하기에 적합한 시구이다. 지극히 고결하고 지극히 적막하며 지극히 슬픈 아름다운 시상을 이 시어 하나가 이끌고 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초사의 芰荷依를 찾고 있었다. 다산은 楚辭 「漁父」의 의경을 강진 유배지에서 그리며 멀리 석양에 눈물지으며 창랑가를 부른다. 남도 바다에 메아리로 남는 고독한 여운은 또 다른 동방의 이소였다.

다산이 유배시절 楚辭에서 찾은 시어들은 묘하게 유배의 정서에 녹아들어 그 비장한 정취를 발하고 있다. 다산이 楚辭를 전망한 유배지 한시의 의경과 의상에는 우아미와 비장미가 동시에 묻어난다.<sup>69)</sup>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는다 하여 원망하면 되겠는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임금이 돌보지 않기를 마치 懷王이 屈平을 대하듯이 한다면 원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회왕이 嬖妾과 佞臣에게 매혹되어 굴평을 쫓아냈을 때 굴평이 태연한 자세로 아무 근심도 없이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다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뿐, 임금이 깨닫지 못한 것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했다면 굴평은 冷心 경장의 인물로서 자기 임금을 길가는 사람 보듯하고 자기 나라 망하는 것을 마치 한 판의 바둑에 지듯이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근심과 슬픔을 안고 맴돌고 또 돌아보고, 「離騷」니, 「九歌」니, 「遠游」니, 하는 글들을 쓰고 또 썼던 그것이 천리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詩는 원망을 나타내기도 있다."하여, 꼭 원망해야 할 자리에 원망을 못하는 것을 聖人으로서도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시의 궁극적인 뜻을 살핀 나머지 원망을 나타내고 있음을 좋게 여겼던 것이다. 司馬遷은, "小雅는 怨誹하면서도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있다."하였고, 孟子는, "아버이의 허물이 지나친 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간격을 둔 것이다."<sup>70)</sup>

69) 申斗煥, 「茶山の 유배 漢詩에 나타난 屈騷의 미의식」, 『漢文學論集』 제28집, 근역한문학회, 2009, pp.125-151.

위 인용문에서 다산은 굴원을 중심에 두고 군신관계를 논했다. 다산은 군신 사이의 원망에 주목하여 굴원의 원망에 대한 결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보게 했다. 다산은 孔子의 시관인 ‘興觀群怨’의 입장에서 굴원의 인물론을 언급하고 초사를 원망의 시각에서 문학으로 승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다산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소를 비평한 ‘怨而不諱’의 미학을 찾아내었다. 즉 원망은 하되 비방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초사를 섬세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의 시인들은 痛飲하며 「離騷」를 읽는 경향이 있었다. 다산은 「離騷」를 읽는 법을 “혹 아내가 손수 빛은 찻쌀술을 권하거든 맛있게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하여 離騷經·九歌의 글을 읽어 울적한 회포를 푼다면 名士라 칭할 만한 것이다.”<sup>71)</sup>라고 하여 술과 함께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아내가 손수 빛은 찻쌀술을 권하거든 맛있게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하여 離騷經·九歌의 글을 읽어 울적한 회포를 푼다면 名士라 칭할 만한 것이다.<sup>72)</sup>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풀 것인가? 이소경을 술과 함께 읽어라.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초사의 이소와 구가에 대한 언급은 조선 후기 선비사회에 초사가 어떻게 읽히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갑자기 밀어닥치는 울적한 회포를 초사가 아니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초사에 대한 감상과 이해는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한잔 술과 초사 그리고 분노의 조합은 조선 후기 선비들의 풍격있는 일상이었다.

조선 시인들은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면 매월당이 그랬듯이 통음하며 이소를 읽어 그 울적한 회포를 풀어내었다. 다산이 이소를 술과 함께 읽으라고 권하는 것에는 이소에 문학의 본질적 사명인 카타르시스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통감만 읽고 있는 당대의 독서방법을 비판하면서 「離騷」읽기를 권하고 있다. 다산은 초사를 『詩經』의 정신을 벗어난 낭만적인 문예로 인식하고

70)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10, 「原怨」

71)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8, 「贈言」尹惠冠

72)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8, 「贈言」尹惠冠

있었다. 그는 『주자집주』의 유교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離騷」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한문학 작가들은 초사에서 琢句하여 시어를 다듬고 點鐵成金하여 시 속에 초사의 정신을 함의 시켰다.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있어서 초사는 이미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독서가 되어 버렸다. 조선 시인들이 굴원의 離騷經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구는 “芰荷로 저고리를 만들어 입고 부용으로 치마를 만들었다(製芰荷以爲衣集芙蓉以爲裳)”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초출하게 시는 隱者의 이미지가 함의되어 있다. 조선 시인들이 지고지순한 절개와 지조를 초사에 비유하며 은일정신을 초사로 표출하고 있었다. 한국 한문학의 문예미학 기저에는 초사가 웅크리고 있었다.

#### IV. 결론

이상으로 한국의 초사 수용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 한문학의 문예미학 기저에는 초사가 웅크리고 있었다. 楚辭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소개되어 인용되기 시작했다. 楚辭는 『文選』, 『史記』, 『朱子大全』, 『古文眞寶』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에 유입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楚辭는 한국한문학 장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한문학 작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초사를 공부하였으며, 시적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초사를 공부하였던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인생의 굽이굽이를 지나치면서 울적한 분위기를 만나면 초사를 떠올렸다.

한문의 한문 문인들이 읽었던 초사는 그 잘못된 사회를 비판했으며, 조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시로써 원망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으니 역시 굴원이 초사에 남긴 회포라 하겠다.

리 한국 한문학 작가들은 초사를 바탕으로 문필생활을 하였으며, 초사는 한국한시 미학의 보고였다.

본고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로 나누고 조선시대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초사의 수용을 고찰한 것은 한국 한시의 초사의 수용양상을 폭넓게 다루고 싶어서였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초사 수용에 대한 미세담론은 논의될 여지가 적었고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모두 다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의 전시대를 아우르고 다양한 층위의 작가들을 수용하여 초사 수용의 다양한 양상을 자유롭게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쓴 것이다.

신라와 고려, 고려 말까지 불교적인 사상이 지배할 때와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유가의 의리사상이 팽배해 가는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초사는 수용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태평성대에는 초사의 수용이 적다.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기에 이르면 초사의 수용이 더욱 번성해진다. 왜냐하면 조정에서 참소를 입고 억울하게 축출당하거나 귀양을 가게 될 때 굴원의 처지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초사는 유배시기에 많이 나타난다.

한국의 문인들이 그렇게 애독한 楚辭의 주옥같은 향기로운 시어들은 詩, 辭賦, 題跋, 行狀, 上樑文, 祭文, 碑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조선 문학 장르에 스며들어 앙금처럼 녹아있다. 한국 한문학 작가들이 보았던 초사의 범위는 초사 전편을 샅샅이 뒤져 이해하였고, 왕일과 주희의 초사집주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읽었다. 그리고 문필활동에서 그 시어들을 點鐵成金하였다. 초사의 형식과 내용면을 통틀어 다양하게 수용하고 변용시키면서 문예미학의 보고로 만들어 나갔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치고 초사를 읽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의 한문학 작품에 초사가 수용되어 있는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은 우리 한국한문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초사가 한국한문학에 끼친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그 수용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초사는 세계문학사 상 동아시아 문학에서 詩經과 함께 詩歌의 근원이 되는 寶庫요 深淵이다. 초사는 한국 한시작가들에게 詩語의 보고였으며 美學의 基底였다. 초사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論語』, 『孟子』, 『莊子』, 『文選』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劉勰, 『文心彫龍』

奇大升, 『高峯集』(한국문집총간 40집)

金誠一, 『鶴峯集』(한국문집총간 48집)

金時習, 『梅月堂集』(한국문집총간 13집)

金昌協, 『農巖集』(한국문집총간 161~162집)

柳成龍, 『西厓集』(한국문집총간 52집)

朴齊家, 『貞蕤閣初集』(한국문집총간 261집)

朴趾源, 『燕巖集』(한국문집총간 252집)

徐居正, 『四佳集』(한국문집총간 10~11집)

申 欽, 『象村稿』(한국문집총간 71~72집)

申翼聖, 『樂全堂集』(한국문집총간 93집)

安鼎福, 『順菴集』(한국문집총간 229~230집)

李奎報, 『東國李相國集』(한국문집총간 1~2집)

李 穀, 『稼亭集』(한국문집총간 3집)

李德懋, 『靑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 257~259집)

李齊賢, 『益齋集』(한국문집총간 2집)

李玄逸, 『葛庵集』(한국문집총간 127~128집)

李 滉, 『退溪集』(한국문집총간 29~31집)

林象德, 『老村集』(한국문집총간 206집)

張 維, 『谿谷集』(한국문집총간 92집)

張顯光, 『旅軒集』(한국문집총간 60집)

丁若鏞, 『茶山詩文集』(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正 祖, 『弘齋全書』(한국문집총간 262~267집)

崔致遠, 『桂苑筆耕集』(한국문집총간 1집)

黃景源, 『江漢集』(한국문집총간 224~225집)

高定佑, 「鄭蘊 유배한시의 楚辭 수용고」, 濟州大學校人文大學國語國文學科國語國文學  
研究會, 1986.

柳晟俊, 『楚辭選註』, 형실출판사, 1989.

申斗煥, 「茶山の 유배 漢詩에 나타난 '屈騷의 미의식」, 『漢文學論集』 제28집, 근역한문  
학회, 2009.

\_\_\_\_\_, 「朝鮮士人들의 楚辭 受容과 그 美意識」, 『漢文學論集』 제30집, 근역한문학회,  
2010.

\_\_\_\_\_,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漢文學論集』 제31집,  
근역한문학회, 2010.

윤주필, 「楚辭收容의 文學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국한문학연구』 제9호, 한국  
한문학회, 1987.

이창룡, 「梅月堂의 굴원 수용 양상」, 『국어국문학연구』 제91호, 국어국문학회, 1984.

李 岩, 『朝鮮中古文學批評史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5.

李澤厚, 『美學三書』, 安徽文藝出版社, 1999.

### Abstract

*A study on Cho-sa(楚辭) mentioned in The Korea  
/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Cho-sa(楚辭) mentioned in The Korea. The Latter of Korea was read fluently and recite a Cho-sa(楚辭) in the original since childhood. The Latter of the Joseon is learn many thing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and composed different form's poem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The Latter of the Joseon poem is full of tragic beauty by imitation of Cho-sa(楚辭). Their poem is a distinctive romantic atmosphere by imitation of mentioned in Cho-sa(楚辭)' folklore, beautiful flowers and plants. They are much alike in character. they are get driven out from the party of a councilor to the king . The incident colored his entire life. They are smart, capable and supremely confident in the poem world of Cho-sa(楚辭).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Latter the Joseon Dynasty poem i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Cho-sa(楚辭) since the creation of 屈原(Ch'ü Y üan). Their Chinese poetry is very beautiful. His poem have a fitting comparison and a symbol a deep meaning sacred verbal image. The latter of banishment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is composed different form's poem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Cho-sa(楚辭) is largely gichin in Korean Poetry.

**【Key words】** Cho-sa(楚辭), Ch'ü Yüan(屈原), Korea, Poetry, mention

투고일 : 5월 15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 Prof of Andong Univ. / ilovestudent@hanmail.net